

쉼이라는 세계

그 속에
나는 키우고
있슴니다



2024 SEP
Vol. 678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09

그 속에
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9월호에서는 '떠날 수' 있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24 SEP
Vol. 678

09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우리 웃을 수



떠난 곳에서
만난 이야기

함께 즐길 수



내려놓기 좋은 시간
장흥

내일 좋을 수



시대를 이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야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4년 9월 1일 | 통권 678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제작·대행·인쇄 이팔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Special
THEME

04. 월간 수토픽

응답하라 1974

우리
웃을 수

10. INTRO

김영하,『여행의 이유』중에서

함께
즐길 수

12. 일상적 사유

모임, 떠나온 사람들의
새로운 관계 맷음

22. 다시갈지도

내려놓기 좋은 시간
장흥

30. 보물여지도

장흥이 숨겨둔
보물 같은 곳으로

34. 사람인지도

16. 일상의 쓸모

세상을 여행하는 조금 특별한 방법들

40. 수타벅스가 간다

장흥의 따뜻함을 담은 사람들
장흥수도지사

44. 온전한 지구

'바다의 애벌단지' 해파리
이대로 괜찮을까?

54. News on

18. 오늘 일기

낭만의 계절, 우리의 여름 속으로

46. Focus on

이상기후에 물이 위험하다
녹조 대응 총력전

56. Report on

38. 장흥 한 상

한입에 쑥 들어오는 자연의 맛
스터프트 머쉬룸

50. Live on

- 유잼도시 대전에서 펼쳐진 한여름날의 축제
- 엄격한 관리를 통한 리스크 원천 차단
내부통제 강화

59. 방울특파원

60. 방울사서함

특별판

한국수자원공사 라이프-마거진
50년 시간여행 풀-스토리

응답하라 1974

★ 중계실화 ★
총무부장인 내게 3개월간
집을 담보로
사옥 계약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케이와타
니우스

집 중 조 명
초호화 사택 백조대로 눈길



최재원 대리, 금소라 과장, 윤여울 과장,
홍진희 대리, 정이현 대리, 이상현 대리

시간여행자들의 정동 견문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서는 대전 이전 당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힘으로 만든 대전과의 인연' 시리즈를 기획, 4편에 걸쳐 선배님들의 기억 저편에 잠들어 있던 추억을 깨워보았다. 하지만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 근무 중인 직원 가운데 서울 정동 시절을 기억하는 이는 없다. 지방 이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도 지방 이전 최초의 공기업이라는 자부심도 지금의 직원들에겐 모두 50년 전의 이야기일 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일 것. 이에 직접 시간여행을 떠나 보기로 했다. 50년을 거슬러 1974년, 정동에 도착한 한국수자원공사 홍보대사 6인. 정동에서의 시간여행 속으로 출발!



1974년 10월 15일 대전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보금자는 서울 정동이었다. 7년 동안 셋방살이했던 그 건물에는 현재 카페와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다. 50년 전 우리 직원들로 북적였던 것처럼 그곳은 여전히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응답하라, 여기는 1974년 정동이다

대전 사옥으로 이전을 앞두고 정동으로 출근하던 마지막 날, 50년 전 그 날 그 거리로 타임머신을 맞추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정동 돌담길. 여기가 정말 50년 전이라고? 길을 따라 늘어선 가로수에서 세월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질게 풍겨오는 걸 보니 제대로 도착한 듯했다. 역시나 고개를 돌리니 그곳에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산책을 즐기는 직원들이 보였다.

“우리가 50년 전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지금 이 풍경이 내 모습이었겠지?” 싶은 생각이 들어 괜히 마음이 울렁였다. 쾌활한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니 어쩌면 지금 우리네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도 했다. 하나 다른 점이라면 공중전화 부스 앞에 긴 줄이 이어진 모습. 하지만 “여기 거봐. 점심시간 끝나간다고~”라며 재촉하는 소리를 들으니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점심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건 똑같은 모양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나 헐레벌떡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



다. 다른 직원들이 먼저 이삿짐을 싸고 있다. 이제 진짜 대전으로 가야한다니 직원들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서울에 사는 가족들은 어쩐 담.”이라며 고민에 빠진 직원도, “회사가 간다는데, 어찌겠어.” 하는 직원도 사실 마음이 무겁기는 매 한가지였을 것. 이삿짐을 싸며 그간 해온 업무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선배들의 손길이 느려졌다.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한 선배님들도 있다. 이곳에서 7년간의 생활을 되돌아보니 “정이 참 많이 들었는데.” 싶으셨을 거다. 그렇게 1974년 10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 정동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정동을 떠나는 선배님들의 발걸음에서 아쉬움과 동시에 새 출발에 대한 설렘이 함께 느껴졌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니까.



**우리는 초회화
사택으로 간다**

**밸런스게임
혼돈의 50년 전
과연 나라면?**

**'좋아요'가
500만 개?!**

Question 01
**국영기업 중 선두로 지방 이전을 외친
한국수자원공사. 내 속마음은?**

**역시 국영기업
원탁다운 행보!** VS **네..?
거짓말이죠..?**

윤여울 과장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불만을 털어놓으면 직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분위기만 퍼질 뿐, '왜 하필 우리가 제일 먼저?'라는 속마음은 일단 삼켜 두고, 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먼저 정리해야겠죠?

정이현 대리 아니 잠깐만요 혹시 T세요? 제 가족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다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대전이라뇨(ㅠㅠ).

홍진희 대리 '지방 이전'이라는 큰 사안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니, 애사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으니, 대전의 맛집을 찾아볼 것 같아요 딱 기다려 대전~!

Question 02
**총무부장인 내게 3개월간 집을 담보로
사옥 계약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걱정되지만
받아들인다** VS **사정을 설명하고
거절한다**

정이현 대리 설마 회사가 제 돈을 빼먹겠어요? 신뢰로 간다!

윤여울 과장 일단 어디 보자.. 차용증을 어떻게 쓰더라...

금소라 과장 안그래도 사옥 이전으로 직원들과 가족들을 설득하느라 힘든데, 사옥 계약금 마련이 라니(ㅠㅠ). 직원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주는 것 아닐까요?

이상현 대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일만 잘 해결하면 높은 자리까지 프리패스 아닐까요?(야망)

Question 03
**고향을 떠나 대전으로 오게된 나,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위, 아래, 옆 눈 돌리면
직원만 보이는
초회화 공짜 사택** VS **내돈내산
원룸 자취방**

이상현 대리 초회화라니 일단 살고 봐야죠. 지금도 직원 10명 정도와 한 건물에 살고 있는데, 공짜도 초회화도 아닌 사택이지만 만족하는걸요?

금소라 과장 저는 퇴근 후엔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최재원 대리 초회화? 사장님과 같이 살아도 사택으로 가겠습니다.

Question 04
**회사 대표로 '한국을 움직이는 인물'로
선정되어 이름을 올리게 된 나.**

**일단 SNS에
업로드한다** VS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지.**

금소라 과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나요. 자기PR의 시대에 여기저기 알리는 게 미덕입니다.

이상현 대리 공감해요. 일단 메신저 프로필 사진부터 바꾸고, SNS에 올리고, 동네에 현수막도 걸어야죠. 또 빠진데 없나요?

윤여울 과장 에이, 그래도 회사가 저에게 준 역할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는 영광이었을 테니 회사 공이 크죠.

홍진희 대리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영광인데 소문은 내죠. 대신 회사의 지원 덕분이라고 꼭 덧붙이겠습니다!

월간 수토픽 8 9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 김영하, 『여행의 이유』 중에서

departme



모임, 떠나온 사람들의

새로운 관계 맷음

글. 김신식 감정사회학자

어쩌다 보니, 모임을 시작했다

나 같은 잇프피(ISFP)는 외출할 때 에너지가 상당히 필요하다. 막상 집 밖으로 나가면 여기저기를 잘 쏘다니다 귀가하곤 하지만… 그래도 외출하는 동안 ‘에이, 여긴 그냥 다음에 갈까. 집에서 쉬고 싶네’ 하는 생각과 수십 번 씨름하는 일은 여전히 부담된다. 그런 내가 2년째 집 바깥에서 열리는 영화 감상 모임을 운영하는데 에너지를 쓴다니. 방금 저 문장을 쓰면서도 믿기지 않는다. 클럽명은 ‘삭삭한 영화 모임’. 내 인스타그램의 캐릭터 이름인 ‘김しゃしゃ’를 따서 지었다. 지금까지 24번의 자리를 가졌고, 108명과 함께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대화를 시작하는 시간. 혹자는 묻는다. 모임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게 정말 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정작 내 대답은 이러하다. “어쩌다 보니 그리 됐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떠나, 함께하다

내가 운영하는 모임에 대해 계속 곱씹다 보니, ‘어디론가 떠나는 일’과 관련 있었다. 문득 첫 모임이 열린 2022년 6월이 생각난다. CGV 신촌 아트레온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를 보기로 했다. 극장으로 향하기 전 신촌에 위치한 모 카페에 모여 서로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자신은 나주에서 올라왔다고 하셨다. ‘와 이 모임이 뭐라고, 나주에서 오셨을까?’라는 감탄과 죄송한 마음이 든 것도 잠시. 모임에 함께하고자 그 먼 곳을 떠나 신촌으로 왔다는 사실보다 놀랐던 건, 모임 참가자끼리 데면데면할까 봐 이야기 거리를 챙겨왔다는 고백이었다. 그 말을 듣고 다들 미안함과 뭉클함이 섞인 표정을 지으며

그분을 바라봤던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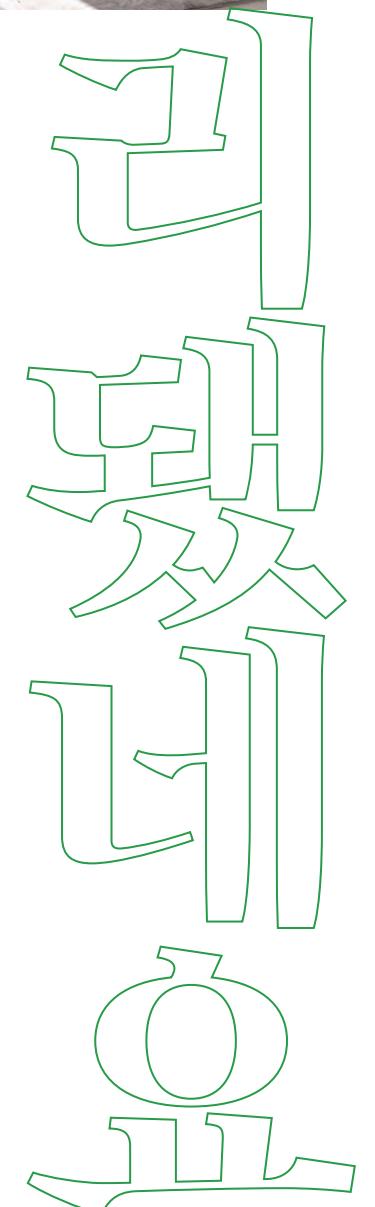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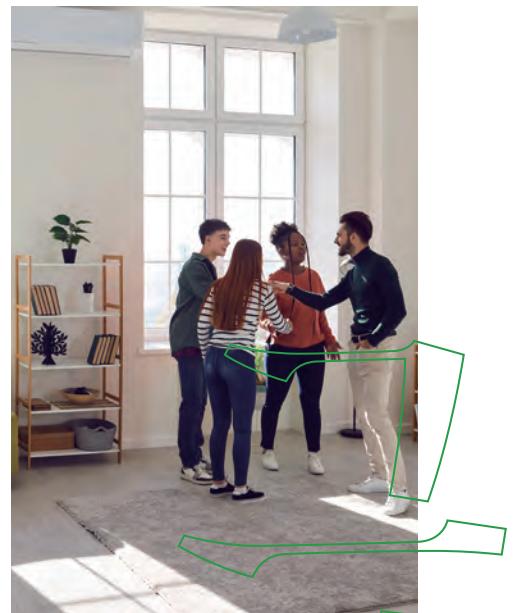
지난 4월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를 보고자 모였다. CGV 압구정 아트하우스에서 작품을 보고 카페로 들어갔다. 한 분이 말했다. 자신은 유학생이며, 다음 날 타국으로 떠난다고. 떠나기 전에 이 모임에 꼭 와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서로 다른 곳에 있던 참가자들은 본인의 생활터를 잠깐 벗어나 같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한 공간에 모였다. 왜 왔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답변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래서 좋았다.

때로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2년 넘게 모임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누군가 소감을 말할 때, 이야기가 엉뚱하게 흘러가도 주눅 들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 물론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 아니었다. 모임 초반, 주선자인 나는 사람들 이 영화에 관한 감상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겪은 고충을 털어놓는 점이 불편했다. 한데 그 점에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 모임이 내

가 원하는 방향대로 시작되고 종료되길 바라는 마음이 짙어갔다. 아래선 안 되겠다 싶었다. 나 말고 모임을 찾아온 이들에게 그날의 분위기를 맡겨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자리에 어색한 기류가 흘러도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괜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걸 잠시나마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모임을 할 때마다 멤버는 달라졌지만,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됨'에서 오는 안온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듯했다. 이는 말할 때 편하다는 반응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영화에 대한 식견을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러면서 영화 감상을 매개로, 다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좀 더 궁금해한다는 걸 확인했다.

그렇게 삭약한 영화 모임의 정체성은 '영화 감상 모임'에서, '인생 경험 모임'으로 변해갔다. 영화에 대한 소감을 본론으로 치자면, 모임은 본론과 상관없는 개개인의 인생담이 오가는 자리가 되었다. 대화 도중 각자의 이야기가 어느 방향으로 틀지 모른다는 점은, 모임 날 본 영화의 반전보다 흥미로웠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모임이 흘러갈수록, 참가자들의 집중력을 탓하기보단,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되고, 들어도 되는 자리가 기대되었다.



모임은 어딘가로부터 떠나고 싶은 이들, 무엇으로부터 떠나온 이들이 안도감을 느끼는 대피처이기도 하다. 내게 모임은, 앞서 언급한 이들과 일회성으로 모여 각자 삶에서 해방되고 싶은 바를 나누며 힘을 얻고선, 또 다른 관계를 향해 다시 떠나는 휴게소 자리매김 하는 중이다.



들어오고 떠나감에 신경 쓰지 않는 모임을 열면서

달리 인상 깊었던 점은 '가입과 탈퇴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다. 이는 고정 멤버를 만들지 않겠다는 모임 규칙에서 비롯되었다.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임에 꾸준히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좋다. 한데 모임이 매번 좋을 순 없지 않은가.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모임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언제쯤 떠난다고 말해야 하나,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나 예민해진다. 나는 사람들이 그러한 부담감에서 편해지길 바랐다. 그래서 매회 다른 멤버를 뽑았다. 다행히도 모임을 두고 떠날지 말지 아예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아직까지는 지속되는 중이다.

그러는 사이, 나는 모임에 온 사람들끼리 연

락처를 주고받고선, 그들만의 자리를 새로 만들어 연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참가자들은 단 한 번의 참여로 삭약한 영화 모임을 떠났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과 관심사를 기반 삼아 관계의 끈을 맺어나간 셈이다. 누가 들어오고 떠나는지에 대해 민감해지지 않아도 되는 모임 속 자유는 친밀함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존중함과 결부되었다. 누군가에겐 끈끈함이란 게 도리어 거리감 있는 관계로 느껴졌다. 다른 누군가에겐 어색함이 묘한 친밀감으로 다가왔다. 모임에 온 사람들은 사회가 '친숙함', '가까움'이란 이름 아래 규정해 온 관계에서 떠나고 싶은 듯 보였다. 누군가와 가까운 사이, 혹은 먼 사

이라는 기존 구도에서 탈피한 새로운 친밀성을 창조하고 싶은 듯했다. 정리하면, 모임은 누군가가 들어오고 떠나감을 두고 아쉬워하는 만남의 형태만은 아니다. 모임은 어딘가로부터 떠나고 싶은 이들, 무엇으로부터 떠나온 이들이 안도감을 느끼는 대피처이기도 하다. 내게 모임은, 앞서 언급한 이들과 일회성으로 모여 각자 삶에서 해방되고 싶은 바를 나누며 힘을 얻고선, 또 다른 관계를 향해 다시 떠나는 휴게소 자리매김 하는 중이다. 그런 휴게소 같은 모임을 경험한 참가자 한 분이, 귀가하면서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나는 그 말을 선물처럼 간직하고 있다. "오랜만에 무해함을 느껴보네요."



세상을 여행하는 조금 특별한 방법들

여행이란 어디론가 떠난다는 의미에서
모두 같겠지만, 그 이유와 방법을 살펴보면
각양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여행하고 있을까.

글. 조수빈



최초의 패키지 여행

여행의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이다. 패키지여행은 비행기부터 숙소, 현지에서의 교통수단, 식사 등이 모두 제공되는 반면, 자유여행에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검색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편리한 패키지 여행이 출발하게 된 데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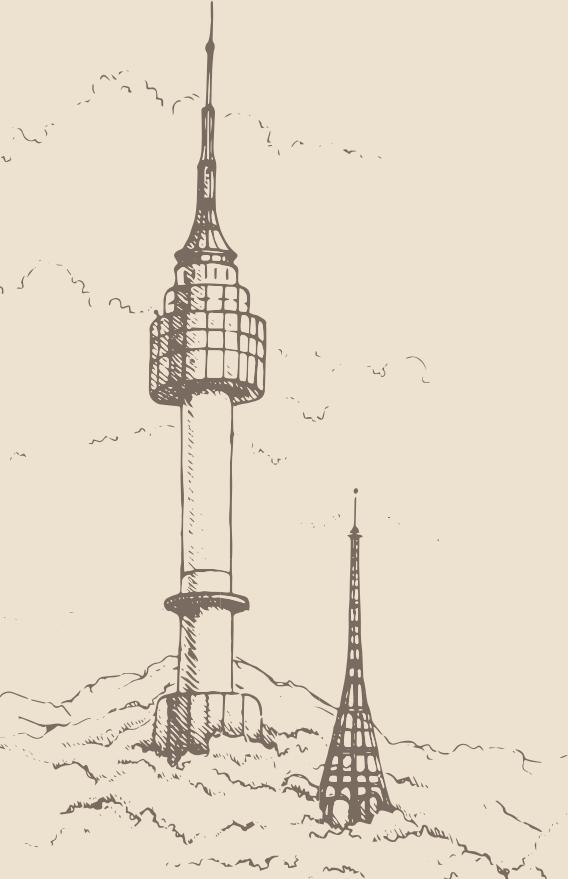
1841년 영국 노동자들의 음주 습관을 개선시키기 위해 금주운동가로 활동했던 목사 토마스 쿡. 그는 금주운동협회 회원들과 함께 금주 캠페인에 참가하기 위해 단체 여행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에는 영국 레스터에서 러프버러를 왕복하는 열차와 식사, 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패키지 여행의 시초이다. 첫 단체 여행 성공 이후 그의 상품은 입소문이 났고, 이후 최초의 여행사를 출범하며 세계 최초의 유럽여행 패키지 상품, 단기 선박여행 상품 등을 내어놓았다. 항공, 유람선, 숙박업 등으로 사세를 확장하던 토마스 쿡 그룹은 2019년 온라인 여행업계의 등쌀에 밀려 파산하게 되었지만, 그가 근대 관광시대를 열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현실판 '걸어서 세계속으로'

'세계 일주'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무려 20여 년을 걸은 사람이 있다. 바로 1998년 11월 1일 영국에서 첫발을 뗀 칼 부쉬비다. 그는 여정을 떠나기 전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 번째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고향인 영국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 그는 총 5만 8,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오로지 두 발로 정복하겠다는 목표로 여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걸었다.

사실 칼 부쉬비가 이 지독한 도전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극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15살 때 언어장애인 난독증 판독을 받은 뒤 인생이 자꾸만 꾼이는 것 같았던 그는 극한의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은 뒤 극복하면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두 발로 하는 세계여행이 시작됐다. 지난 8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 카스피해를 횡단하기 위해 수영을 배우기도 했다. 여태껏 카스피해를 수영해 건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의 항해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록을 남기며 온 지구에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들



지금 인기 있는 여행지를 꼽으라면 '한국'이 빠질 수 없다. 각종 콘텐츠의 유행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K-Travel은 어떻게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 과거와 비교하면 많은 것들이 변한 모습이다. 남산, 명동, 인사동 등 관광 거점을 위주로 여행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서울

성수동 팝업 투어, 연남동 카페 투어 등 '힙'한 곳으로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 한복 체험 대신 퍼스널컬러 진단을 받고 식당에서 한식 한 상 차림을 먹는 대신 한강에서 라면을 먹는다. 이에 외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지금 가장 유행하는 맛집, 카페, 팝업스토어 지도 등의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는 숙박업 체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기념품 트렌드도 달라졌다. 오로지 전통으로만 풀어낸 전형적인 기념품보다는 한국의 멋을 접목한 에코백이나 머그컵 등 감각적으로 해석한 굿즈들이 인기린다. 한국의 찐 로컬 문화가 외국인들의 감성을 제대로 자극했다. 외국인 친구가 가이드를 요청하면 고민 없이 지금의 유행을 알려 주자.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일 테니까.

낭만의 계절, 우리의

여름 속으로

고령권지사 윤정호



그래도 기념은 해야 하잖아요?



서산권지사 김수현



저희 아들 어때요?

올해 휴가는 필리핀 세부로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스쿠버다이빙 중에 글쎄 큰 고래상어를 만난 거 있죠. 사실 저는 저 때 딱 두 아들을 케어하느라 정신없는 바람에 고래상어를 만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기념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단체로 상어 포즈를 취한 채 사진을 찍었답니다.

천안권지사 전영호



아이와 함께 떠나는 첫 여행

올여름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2024 파리올림픽'이었죠. 특히 사격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하는 걸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사격 금메달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물총을 든 채 포즈를 잡는 저희 아들 어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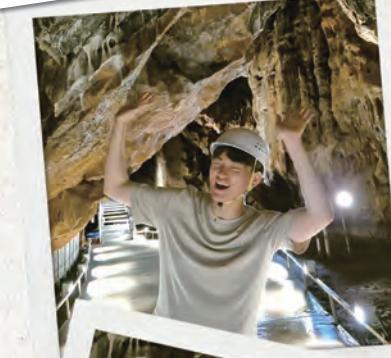
이번 여름 회사에서 제공하는 하계휴양지에 당첨되었는데요. 어떻게 이 소중한 기회를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보육원생과 함께 흥천을 다녀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떠나는 첫 여행이었는데 함께 물놀이도 하고, 알파카 가족 구경도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한강보관리단 조서영



유치원 방학은 왜 이렇게 긴 건가요?

부산권지사 김준민



드넓이 오싹해서 추웠던 것 같기도 하네요

뜨거운 태양 아래 타들어 가는 엄마의 마음을 아시나요?
유치원 방학은 왜 이렇게 긴 건가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현실로 돌아가자!

이번 여름 휴가에는 울진에 있는 덕구온천으로 향했습니다. 덕구온천 근처의 성류굴이라는 동굴에도 다녀왔는데요. 바깥 날씨는 맨날 주룩주룩 날 정도로 더웠는데, 동굴 안은 매우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동굴이 오싹해서 추웠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암석 아래에서 제가 작게만 느껴졌거든요.

운문권지사 이동출



워터파크 뷔페!

가족과 함께 다녀온 워터파크.
버블쇼 타임에 거품 모자를 쓴 아들과 나!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
신나게 놀았네요!



“어떤 여행 좋아하세요?”

누군가는 공항으로 가는 길을, 누군가는 집 가까운 곳을 떠올린다.

서로 여행하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마음에 남는 여운의 크기는 같을 것이다.

낯선 공간이 주는 묘한 짜릿함 또는 익숙한 풍경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그것만으로도 여행의 의미는 충분하다.



낙동강유역수도지원센터(처) 신은진



물에 빠지기 1초 전!



영주댐지사 정주원



우리 동기들~ 우정 영원하자♡

미끄럼틀 타고 승~ 내려온 아이의 모습이 꽤 신나 보이죠? 사실은 물에 빠지기 1초 전을 포착한 모습입니다. 엄마인 제가 타이밍을 놓쳐 버렸거든요(하하).

정보관리처 정기영



아~ 또 가고 싶다!

코타키나발루로 오랜만에 떠난 가족 여행 중 찰칵. 뒷모습만 보아도 미소가 보이지 않나요? 아~ 또 가고 싶다!
다음 휴가만 기다립니다.

단양수도지사 양시은



처음으로 요트를 탔어요!

금강유역관리처 허영은



저희 쇼윈도 자매 어때요?

태백권지사 김다현



더위야 물 끌어가자~!

전국에서 가장 시원하다는 태백으로 피서를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바람의 언덕에서 창풍을 쏘고 있는데, 어떻게 다들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더위야 물러가라~!



보 림 사

거꾸로 흐르는 시간

여행은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과거의 시간 속으로 가는 것이기도 하다. 보림사가 그런 곳이다. 860년에 지어졌으니 그 세월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6·25 전쟁 때 대부분의 건물은 무너지고 그 후 복원한 것이나, 일주문과 천왕문 그리고 석탑과 석등은 그대로다. 석탑과 석등은 설계자가 의도한 듯 저 멀리 외호문에서부터 정확히 눈에 들어온다. 고요한 이 절에서 절로 겸손해지는 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작은지 새삼 깨닫게 된다. 보림사를 한 바퀴 돌아 본 뒤엔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쉬어 가도 좋다. 나무가 큰 만큼 그늘도 너르다. 결국 우리가 여행에서 마주하고 싶은 건 이런 쉼이 아닐까.

내려 놓기 좋은 시간 장 흥

자주 앓고 싶고 느려지고 싶고 멀리 바라보고
싶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온 걸
안다는 듯 곳곳에서 몸도 마음도 이완케 했다.
이런 곳이라면 며칠도 더 머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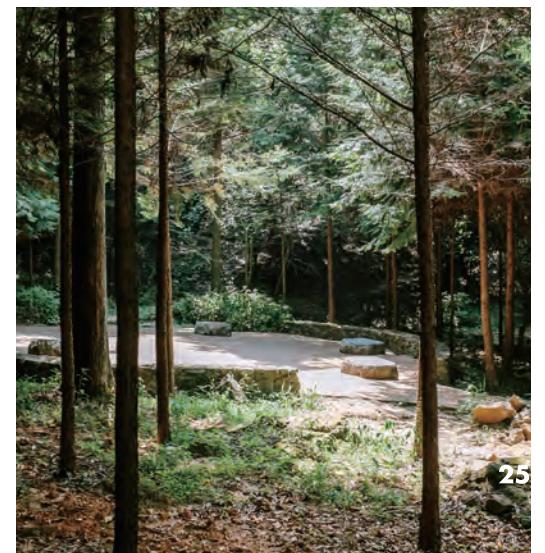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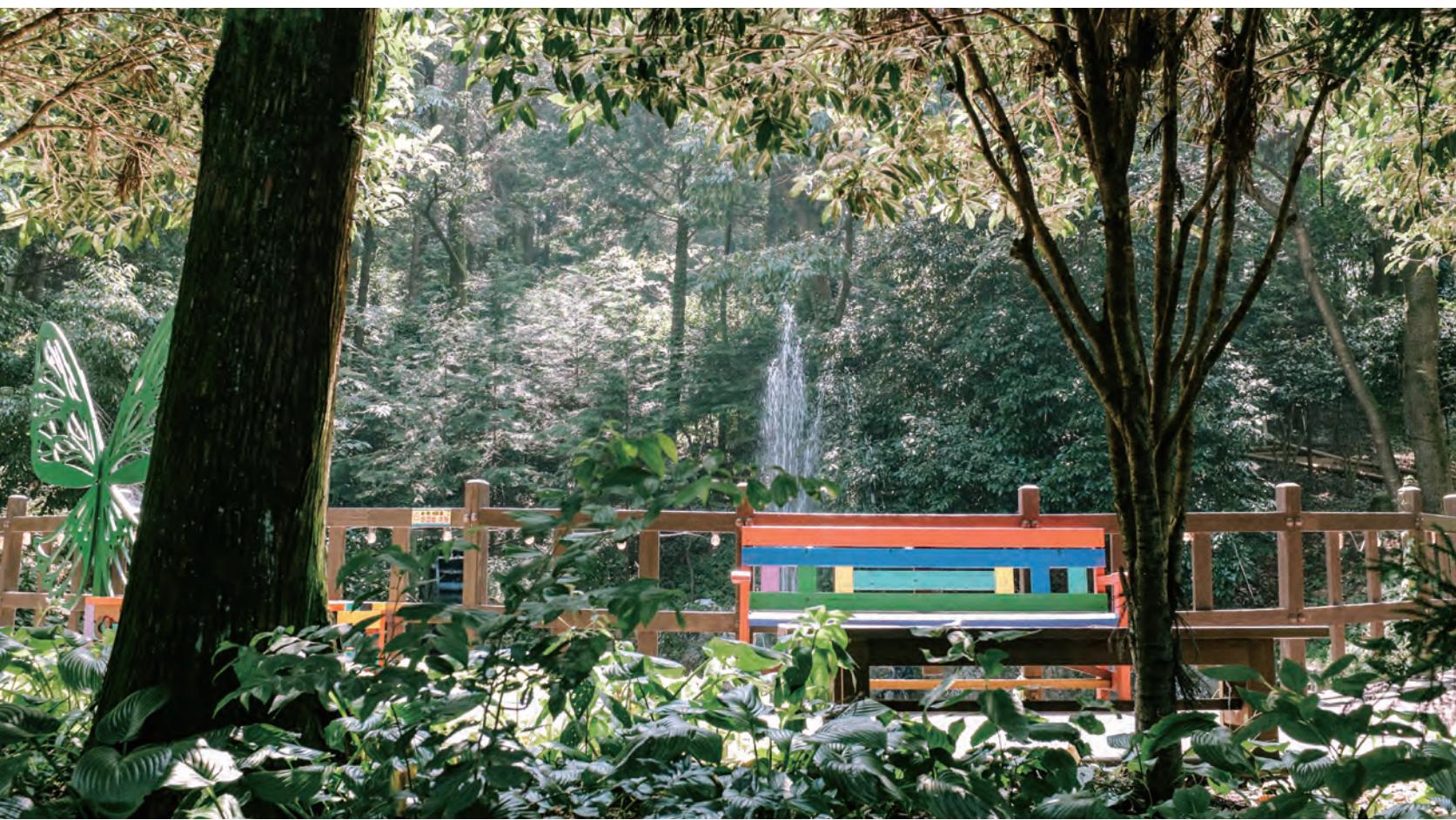
글·사진 박재현 소설가



우드랜드

나무에게 하는 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장흥에선 나무가 특별한가 보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편백나무를 한없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자꾸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게 만든다. 들숨에 편백 향이 가슴에 가득 차니 기분이 환해질 수밖에 없다. 숲이 워낙 우거져 대부분 그늘이다. 나무 사이 틈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별이 반기울 정도. 걷기도 좋고 생각 없이 명하게 있기도 좋다. 벤치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를 따라 마음도 조금씩 일렁인다. 언젠가 기술이 발전해 나무와 소통할 날을 꿈꾸곤 한다. 나무는 과거를 다 알고 있을 테니까. 할 말도 많지 않을까. 나도 말할 것이다. 내 어주기만 하는 너의 생을 닮고 싶다고.



우드랜드에는 산책길뿐만 아니라 식물원, 폭포, 편백소금집, 전시관 등이 있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 자연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숙박 시설도 있어 숲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기에도 좋다.

선학동마을

나그네가 되기 좋은 동네

장흥은 유독 많은 문인을 배출했다. 산과 들과 바다가 다 수려해서 그런 게 아닐까 추측해 본다. 선학동 마을은 이 셋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장흥 출생 작가 이청준의 소설『선학동 나그네』의 배경이기도 하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이 온 마을을 뒤덮어 마을은 계절마다 윤이 난다. 마을 언덕배기에 위치한 정자에서는 득량만 바다와 마을 전체를 아울러서 볼 수 있다. 정자의 모서리가 마치 액자의 프레임처럼 풍경을 포장한다. 길 곳곳에는 이청준의 작품을 설명한 게시판이 있어 그의 작품에 울고 웃은 독자라면 그때의 감상이 피어오를 것이다. 마을의 정보를 묻는 여행자에게 시원한 거라도 한 잔하고 가라는 주민들의 인심은 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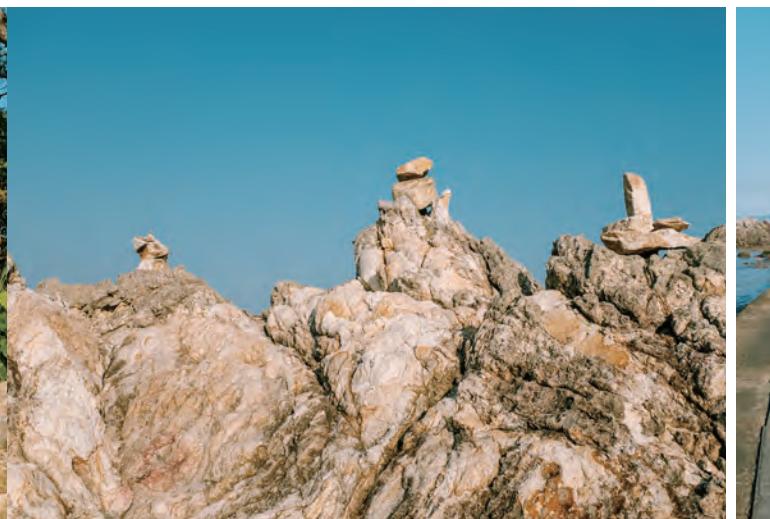


선학동마을에서는 높은 곳으로 갈수록
산과 들과 바다가 잘 보인다.
가을에는 10만 여m² 대지 위에
메밀꽃이 피어 동화 같은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
10월에 메밀꽃 축제가 열리니
놓치지 말자. 근처에 소설가 이청준
생가가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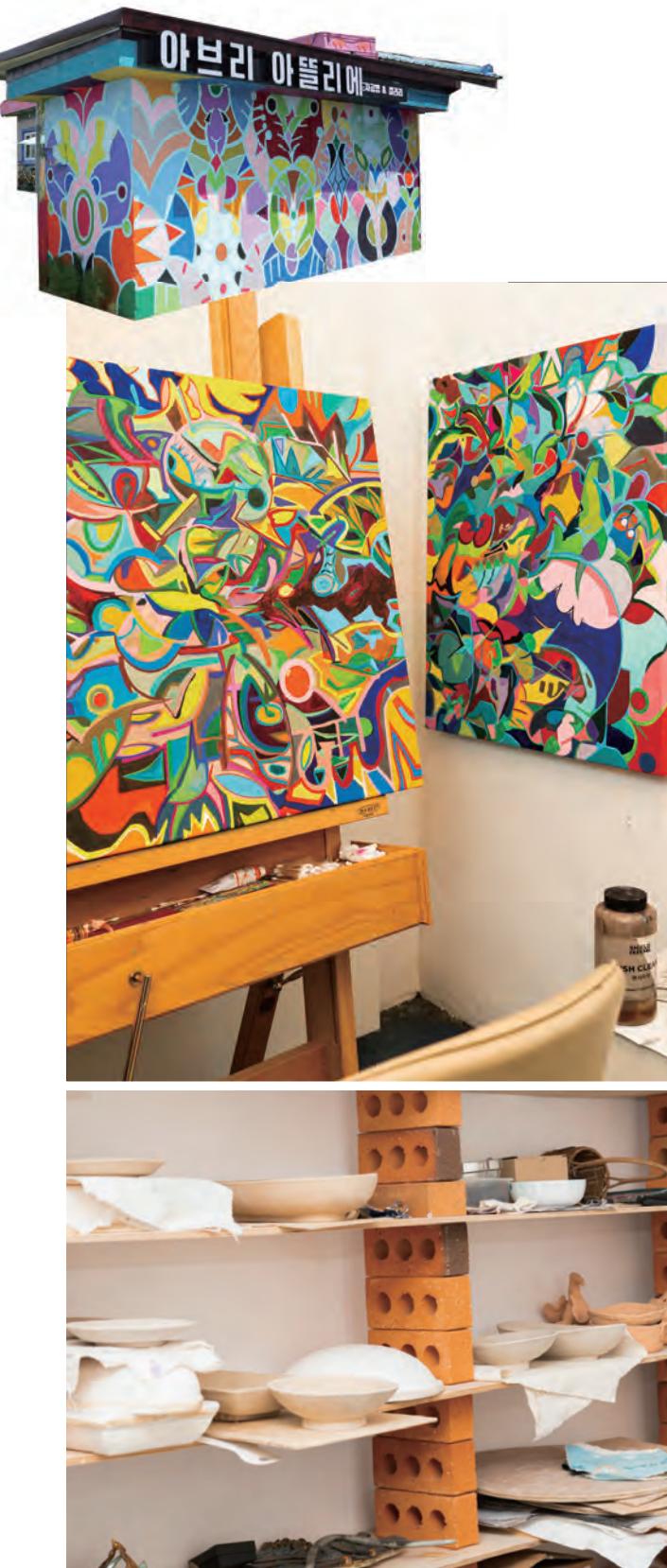
먼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간 남편을 위해
호롱불을 켜 놓고,
그 불빛을 보고 무사히
귀환하기를 빌었다 하여
소등섬이라 불린다.
일몰보다는 일출이 더 아름답고
사진으로 남기기 좋다.



소등섬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

작을수록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 자그마한 소등섬은 멀리서 봤을 때 더 멋이 난다. 거북이 등에 꽃이 핀 것처럼 소나무들이 힘차게 솟아 있다. 이 섬은 물과 길이 연결돼 있어 걸어서 갈 수 있다. 다만 늘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루에 두세 번, 물이 빠질 때야 길이 드러난다. 기다려야 만날 수 있으니 소중해질 수밖에 없다. 해가 질 때쯤 연분홍빛 노을과 겹쳐지는 섬의 자태를 담아 가자. 내 안에 작은 섬처럼 띄워져 있는 그리운 이가 떠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아브리 아뜰리에

● 위치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서편2길 18-9

● 운영 12:00~18:00, 매주 월요일 휴무

● 문의 인스타그램(@abriatelier)

일상 속 ‘예술’이라는 안식처

장흥고등학교 옆 야트막한 언덕길을 조금만 오르면 알록달록한 건물이 눈에 띈다. 대문 울타리부터 건물 외벽까지 아기자기하게 페인팅해 놓은 이곳은 장흥의 유일한 갤러리 아브리 아뜰리에다.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을 전공한 김미진 작가가 운영하는 아브리 아뜰리에에서는 보다 다채로운 장르들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매월 진행되는 기획 전시에서는 그림은 물론 설치미술, 음악, 퍼포먼스 등 장르를 넘나들며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9월에는 온라인 갤러리인 ‘페이퍼 그라운드’와 협업한 <틀림없는 기도> 전을 진행 중이다. 마당 한쪽 공간은 김 작가의 작업실이자 공방인데, 이곳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체험 수업을 진행한다. 도자기, 유화 등 내 손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며 예술에 흥미를 키워가는 기회이다. ‘아브리(Abri)’는 ‘안식처’, ‘쉼터’라는 뜻이다. 지역민들이 삶에 지칠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붙인 이름이다. 김 작가는 이 아담한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작은 날갯짓이 장흥 곳곳에 예술의 꽃을 피우길 꿈꾼다. 문화사랑방에서 피어나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브리 아뜰리에로 가 보자.

9월 기획 전시 <틀림없는 기도>

페이퍼 그라운드 X 아브리 아뜰리에

9. 1.(일)~9. 29.(일)



정남진 전망대

위치 전라남도 장흥군 정남진해안로 242-58

운영 09:00~20:00, 매주 월요일 휴무

문의 061-867-0399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장흥 풍경

장흥의 랜드마크를 꼽으라면 '정남진 전망대'를 빼놓을 수 없다. 서울 광화문을 기점으로 정남쪽에 있는 곳이 바로 장흥의 '정남진'이다. 그러나 정남진 전망대에서 우리나라 남쪽의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로 걸어가는 길목의 통일광장에서는 한반도 모양을 한 바닥분수가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며 우리를 맞이한다. 시선을 조금 돌리면 '율려'라는 커다란 조형물이 있는데, 이 조형물은 정남진에서 바라본 동근 모양의 바다를 상징하고 있다. 일출이나 일몰 때는 커다란 태양에서 뿐어 나오는 붉은빛이 원형의 조형물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한다.

다음으로는 전망대 건물 안으로 자리를 옮겨 보자. 전망대는 총 10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단연 꼭대기 층의 전망대이다. 통창으로 되어 있어 장흥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곳곳에 벤치가 놓여있으니 한참이나 바다를 바라보며 쉬어가도 좋다. 전망대를 떠나기 전 각 방향으로 놓인 망원경으로 정남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바다 건너 소록도, 금일도 등 섬들의 풍경과 선착장에 가지런히 정박한 작은 배들이 소담스러운 분위기를 더한다. 바다를 마음껏 감상했다면 한 층 아래에 위치한 카페에서 시원한 커피와 여운을 즐겨 보길. 전망대와 카페를 제외한 공간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다. 올 연말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활짝 연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다.

장흥 바다는 소리가 없다. 바람에도 잔잔한 물결만 그릴 뿐. 이 고요함 속에 시끄러운 마음들을 틀 던져두고 돌아오자. 장흥의 소리 없는 위로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보물여지도



32



문화당

위치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7-1

운영 09:00~21:00

문의 061-863-6666

80년, 긴 세월 장흥을 지키는 서점

장흥에는 서점이 딱 두 군데 있다. 그중 문화당의 역사는 장흥의 세월과 같이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당이 처음 문을 연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4년이다. 일제강점기 책이 귀했던 시절 동네 도서관으로 문을 짹 연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그렇기에 문화당으로 들어면 서가에 빼곡히 꽂힌 책에서 텁텁한 종이 냄새 대신 그윽한 세월의 향기가 먼저 느껴진다. 서점의 명맥을 이토록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창립자인 최인창 씨부터 3대째 운영 중인 최경석 대표 내외 부부까지 모두가 책에 진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당은 대형서점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취급하는 책의 스펙트럼이 넓다. 구역은 딱 반으로 나뉘어 있다. 서점으로 들어서서 왼편으로는 독서 생활을 위한 일반 서적이, 오른편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참고서와 학습지 등이 있다. 그림책, 취미서적도 많을뿐더러 지금 가장 인기있는 베스트셀러까지 놓치지 않았다.

책의 바다 속에서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고민된다면 추천을 받아 봐도 좋다. 대표 내외의 최애 작가는 박완서 작가란다. 이어 『월든』, 『알로하, 나의 엄마들』 등 끊이지 않는 추천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들이 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서점, 북카페 등의 등장 속에서도 우직하게 지역민의 결을 지키고 있는 문화당. 이곳에서 장흥의 역사는 오늘도 켜켜이 쌓여 가고 있다.



33



'로컬' 재미난 이야기

극예술창작집단

흥

안치선 대표

장흥에 산다는 건, 예술 속에 산다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작품'이 되고, 내가 직접 '배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장흥의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들고, 동네 이웃을 예술가로 탄생시키는 극예술창작집단 흥의 안치선 대표를 만났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도시 청년, 장흥의 매력에 빠지다

10년 전, 전남의 작은 마을에 극단을 차렸다는 선배를 응원하기 위해 기차에 올라탄 안치선 대표. 그때까지만 해도 장흥에 놀러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울 대학로에서 극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연극의 메카’로 통하는 곳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번아웃이 심하게 왔어요. 그러던 차에 선배의 연락을 받고 ‘힐링이나 하러 가자’라는 마음으로 기차를 탔죠. 선배를 도와 작품을 만들고 선보이면서 작은 도시에도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접할 기회가 잘 없었을 뿐이더라고요. 이곳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욱 빛내보자는 마음으로 귀촌을 하게 됐어요. 장흥에 산 지 올해로 벌써 6년이 됐어요.”

처음부터 극단을 차렸던 건 아니다. 대도시에 비해 인프라도, 무대에 오를 기회도 적은 군 단위 지역에서 한 명의 ‘연출가’가 아닌 ‘대표’로서 극단을 운영하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장흥에서 평생 살겠다고 마음먹고 나니 이왕이면 이곳에서 ‘재미있게’ 살고 싶었다.

재미있게 살 방법은 하나, 자신이 좋아하고 또 잘하는 ‘극단’을 운영하는 거였다. 그렇게 스태프, 배우까지 모두 장흥 사람으로 꾸린 예술단체 ‘흥’이 탄생하게 됐다. “극단 흥은 제가 좋아하는 지역의 사람들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만든 단체입니다. ‘흥’

이라는 이름에는 '장흥의 극단'이라는 뜻과 '흥겨움'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어요." 3년 차 극단 흥은 장흥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장흥을 넘어 남도 지역을 넘나들며 예술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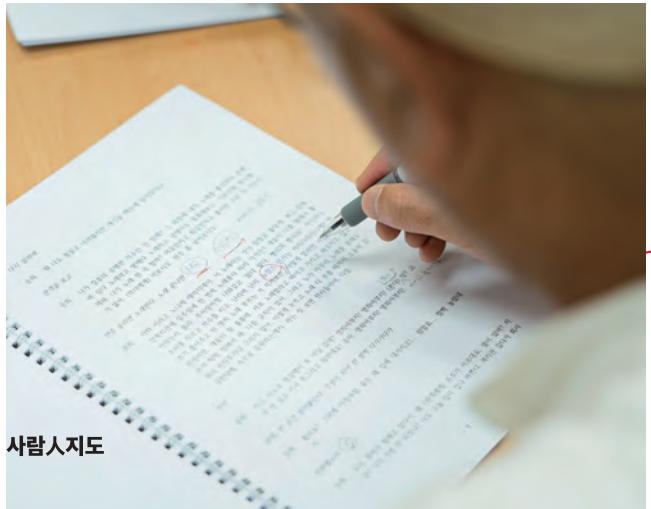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다

안 대표의 말에 따르면 예술이란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를 던지는 일이다. 대학로에 있는 동안 그는 관객들이 작품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철학적인 질문을 자주 던졌다. 주로 인간의 번뇌, 욕망 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장흥에 온 이후로 그의 이야기는 180도 바뀌었다. "요즘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상 속의 소소한 에피소드로도 우리네 인생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더라고요. 산과 강, 바다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나 봐요(웃음)."

흥은 매년 3~4개 정도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 모두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다.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보』 장흥 출생 한류 1세대 작곡가 손석우 선생의 음악 인생 등 지역 인물은 물론 설화, 장소 등 지역 곳곳에 잠들어 있는 이야기를 깨워 작품으로 만들어 낸다. 최근에는 장흥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시선에서 우리는 모두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장흥의 세월과 사람들을 잇는 일



사람人지도

지난해에는 지역민이 직접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손석우 선생의 인생을 주제로 한 음악극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에 지역민들을 연기자로 세우기 위해 '장흥군민 연기자 오디션'을 개최한 것. 덕분에 평범한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동네 꼬마, 고추 농사를 짓는 농부까지 모두 예술가로 변신했다. 비전문 배우와 함께 하는 과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가장 관건은 '연기력'인 줄 알았는데, 안 대표는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고 회상했다. "공연 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막바지 연습에 열을 올려야 했는데, 연기자 한 분이 연습에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고추 심을 시기라 고추밭에 가야 한다고요. 사실 연기자이기 전에 본업이 있는 분들이 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힘들기도 했지만 둘이켜 보면 모두 재미있는 추억이죠. '흥'에서만 있는 에피소드니까요."



안 대표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화예술의 가치와 즐거움을 전파했으니 다음 스텝으로는 여리 형태의 예술을 선보이고 싶단다. 바로 '소극장 문화'다. 한 시간 거리인 목포만 해도 소극장이 여럿 있는데, 장흥에는 아직 소극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난 7월에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 올 여름에 진행했던 '제1회 작은 음악 예술제'에서 그는 500석 규모의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50석 규모의 소극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소극장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웅장하고 압도적인 대극장 공연과 달리 소극장 공연에서는 배우들이 흘리는 땀방울, 깊은 눈동자, 떨리는 숨소리 등이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건 또 다른 울림이에요." 그의 바람대로 작은 공연이 주는 깊은 여운을 관객들도 오롯이 느꼈던지 한참이나 무대를 곱씹었다는 관객들의 후기가 많았다. 소극장은 비단 관객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가들에게도 공연의 문턱을 낮춰 준다. 동네 고등학교 밴드가 모여 연주하고, 연극 동아리가 연기하기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극장 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옆집 이모, 삼촌, 친구, 아이들 등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는 장이자 우리의 이웃들을 응원하는 공간이 될 거라고 덧붙였다.

그가 꿈꾸는 장흥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문화가 더 멀리 퍼져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즐기는 것이 우선이에요. 장흥의 고유한 색깔을 잘 지키고, 지역민들이 재미있게 즐기다 보면 반응이 올 거라고 믿어요. '장흥 재미있는 곳인가 봐!' 하고요."

오늘 우리가 만난 장면들은 또 어떤 작품으로 탄생하게 될까. 이토록 재미난 장흥이라니. 안 대표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장흥이 더 궁금해졌다. 그가 6년째 장흥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내일도 분명 재미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리라.

한입에 쭉 들어오는 자연의 맛

장흥의 특산물을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장흥삼합'을 이야기할 것이다. 맛있게 구운 한우와 키조개, 여기에 킥은 '표고버섯'이다. 장흥 표고버섯은 숲과 바다의 기운을 가득 받고 자라 향이 진하다. 이 짙은 존재감으로 또 다른 요리가 탄생했다. 완전히 다르게 즐기는 표고버섯 요리를 소개한다.

글. 편집실 그림. 박한솔

스터프트 머쉬룸



장흥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표고버섯 주산지다. 특히 산과 숲, 바다와 갯벌,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 등이 장흥을 표고버섯의 고장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장흥의 해풍을 맞으며 자란 덕분에 이곳 표고버섯들은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깊다. 짙은 맛을 내는 표고버섯은 다른 식재료들과 섞여도 그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재료의 속을 도려낸 뒤 다른 재료로 채워 만든 요리를 '스터프트(Stuffed)'라고 한다. 스타프트 요리는 오이, 피망, 토마토, 삶은 달걀 등 주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는데, 표고버섯을 이용하면 보다 쫄깃한 식감의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 스타프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주재료를 접시로도 활용한다는 점이다. 표고버섯은 꼭지를 따 뚜껑을 접시로 쓰면 된다. 따낸 꼭지를 잘게 썰어 속 재료로 이용하면 되니, 이 작은 요리에 표고버섯이 아낌없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스타프트 요리는 식전에 식욕을 돋우기 위한 애피타이저로 주로 내어진다. 이밖에 와인과 곁들이는 핑거푸드로도 좋고, 요리의 모양새가 예뻐 손님에게 대접하는 요리로도 좋다.

스터프트 머쉬룸

재료

표고버섯 6~8개, 양파 1개, 다진마늘 1큰술,
빵가루 0.5컵, 소금, 후추, 토마토소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파슬리 가루

레시피

- 표고버섯의 꼭지를 따 굽게 다지고, 양파는 잘게 다진다.
- 다진 버섯과 양파, 마늘을 넣고 수분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볶는다.
- 볶은 재료들을 소금, 후추로 간한 뒤 빵가루를 넣어 갈색빛이 돌 때까지 볶는다.
- 꼭지를 딴 표고버섯 뚜껑에 토마토소스를 한 큰술씩 넣고, 볶은 재료들로 채운다.
-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와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린다.
- 180°C 예열된 오븐에 버섯의 윗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굽는다.
- 맛있게 먹는다!





장흥의
따뜻함을 닮은 사람들

장흥수도지사

뜨거운 열정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다. ‘장흥’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흥수도지사로 간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영상. 노재준



지역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지사

장흥수도지사는 총 938km에 달하는 관로와 80여 개의 수도시설을 관리하고, 하루 2.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며 장흥군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을 책임지고 있다. 이곳에는 고객지원, 설비운영, 관망운영 등 수도 분야에 10년 넘게 몸담고 있는 일명 '수도 고수'들이 많다. 덕분에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앞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고 있다. 민원인을 대할 때도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빛을 발한다. "장흥에는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쉽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문적인 용어나 복잡한 설명보다는 마치 부모님께 말하듯 친근하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민원도 많이 줄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교류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자식처럼 대해주신답니다."라며 한정선 팀장이 관망운영팀의 노하우를 전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통신·전기 데이터를 결합한 사회안전망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른바 '어르신 맞춤형' 물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지역민과의 상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매년 여름 장흥의 가장 큰 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 축제'가 개최되는데 17회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지난 7월 진행됐던 이번 물 축제에서는 수차발전기를 활



용한 물드림 캠프, 선물 증정 이벤트 등을 진행했는데, 그중에서도 이동형 스마트 음수대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 "정남진 장흥 물 축제가 '장흥의 워터밤'이라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장흥수도지사 부스에서는 수돗물을 자유롭게 마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동형 스마트 음수대를 운영했었는데 올해 유난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물 축제 부스를 지켰다는 안철호 팀장은 축제를 신나게 즐기는 관객들의 모습에 고된 마음을 싹 잊을 수 있었다며 말했다. 매년 여름 진행되는 축제인 데다 즐길 거리가 많으니까 한번 들려보라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수타벅스 덕분에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현장 업무 비율이 높은 만큼 장흥수도지사의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수타벅스가 온다면 말이 달라진다. 이벤트가 시작됨과 동시에 오매불망 수타벅스만을 기다리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줄을 섰다. '뭐 마실 거야?' 직원들이 설레는 고민에 빠진 이때 저 멀리서 현장 업무를 나갔던 직원들이 달려왔다. "오전에 현장 업무가 발생하는 바람에 자리를 비웠거든요. 수타벅스를 놓치는 줄 알고 부랴부랴 돌아왔는데 다행히 시원한 커피가 맞아주고 있어서 반가웠어요."라며 서둘러 동료들 뒤로 줄을 섰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도 초대했다. 함께 고생하고 있는 장흥군 수도사업소 직원들이다. 고생을 나누며 돈독해진 이들은 이번에는 즐거움을 두 배로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늦여름의 더위가 쉽게 물러가지 않겠다는 듯 맹렬한 열기를 내뿜어서 일까. 직원들은 "한 잔 더 마셔도 될까요?"라며 수타벅스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시원한 커피 한 모금에 달콤한 탕후루를 한 알씩 쑥쑥 빼먹던 관망운영팀 박희진 사원은 "사실 입사 전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타벅스가 간다'를 알고 있었어요. 영상으로만 보던 수타벅스를 만나니 감회가 새로워요."라며 마치 유튜브 영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장흥은 단순히 내가 일하는 지역이 아니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장흥을 위해 달려나가는 이들이 그려갈 내일이 기대된다.

● interview ●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고객지원팀 안철호 팀장

장흥수도지사의 직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열정이 넘쳐요. 언제나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며 고민하는 동료들을 보며 저도 힘을 내고 있답니다. 어느덧 2024년 하반기로 달려가고 있는데, 상반기에 농사지은 사업들의 성과를 잘 수확했으면 좋겠어요. 장흥수도지사 직원 여러분. 항상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여러분과 함께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자고요! 파이팅~♡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장흥수도지사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 보세요.



‘바다의 애물단지’ 해파리

이대로 괜찮을까?



글 이유종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해파리 쏘임 사고
총 2,989건
(2024년 7월 기준)

올해 여름에도 어김없이 해파리가 찾아왔습니다. 해파리는 대부분 독이 있는 촉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독은 사람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회초리로 맞은 듯한 발진과 통증,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하면 혈압저하, 호흡곤란, 의식불명,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죠. 전 세계에서 상어가 공격해서 죽는 사람보다 해파리 독에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해파리 쏘임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해수욕장 개장 이후 7월 5일까지 접수된 해파리 쏘임 사고는 총 2,989건입니다. 폭우 등으로 관광객이 줄어든 2023년(753건)을 제외하면 2021년 2,434건, 2022년 2,694건보다도 늘었습니다.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해파리 종류는 다양합니다. 독성이 있는 것만 9종류로 노무라입깃해파리, 유령해파리, 커튼원양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작은상자해파리 등이 있습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최대 길이가 2m, 무게는 150kg에 달하고 개체수가 많습니다. 이런 대형 해파리들은 그물에 걸려도 점액질을 분비하며 죽기 때문에 같이 걸렸던 물고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기 마련입니다. 수입이 5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어민들의 불من소리도 나왔습니다. 해수욕장 피서객들은 언제 쏘일지 몰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제주와 남해 연안에서 출현한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바다 1㏊(1만m²)당 108마리입니다. 가로세로 10m 면적마다 1마리가 넘게 있다는 의미인데요. 지난해(0.3마리)의 약 360배에 달합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 표면층 온도

21.7도

18.2도



2020년대



2090년대

그렇다면 해파리는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반도 주변 바다의 표면층 온도는 2020년대 평균 18.2도였습니다. 2070년에는 20도를 넘긴 뒤 2090년대에는 21.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 20도를 넘기면 ‘열대 바다’로 분류됩니다. 열대성 어종인 해파리는 ‘바다의 온도계’라고 불릴 정도로 온도에 민감한 생물입니다. 기후변화로 바다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 해파리도 한반도 주변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파리는 보통 7월 정도에 한반도 연안에서 발견됐는데, 올해는 5월부터 해파리 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눈에 띄게 많아졌지요.

과연 온도 변화만이 해파리를 유입시킨 원인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해파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안 개발과 오염 물질 방류로 바다에 영양분이 넘치게 공급되면서 해파리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매우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해파리의 먹이가 풍부해지자 개체수가 빠르게 늘기 시작했죠. 해파리의 유생(변태하는 동물의 어린 것)인 ‘풀립’은 어딘가에 달라붙어 성장하는데, 제방 등 해양 인공구조물이 많아지며 번식이 쉬워졌습니다. 이 밖에도 개복치, 취치류 등 포식자 감소도 증가 요인입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수산업과 국가기간시설 피해 등 경제적 피해액은 연간 수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해파리를 달리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일단 해파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숲뿌리해파리로 식용이 가능합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원료로 인정했고 촉수를 제거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염장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식용으로 상품화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파리 독에서 관절염과 당뇨병, 치매를 억제하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해파리에 풍부한 콜라겐을 추출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해파리 활용에 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해파리가 앞으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이면 녹조와의 싸움이 시작된다.
특히 올여름 유난히 폭염과 폭우가 극심했던 탓에
녹조 적색경보가 켜졌다. 이러한 불볕더위는
매년 더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녹조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노력을 살펴본다.

이상기후에 물이 위험하다 녹조 대응 총력전

글. 편집실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물환경관리처



안동댐 유역의 녹조에 대응하여 가동중인 수면 포기기와 녹조제거선

여름철 불청객, 녹조

'물의 색'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쾌청한 푸른빛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극한 호우 끝에 이어진 폭염에 우리 강과 호수가 짙은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다. 강이나 호수에서 광합성으로 생활하는 남조류가 과다하게 성장해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녹조'라고 한다. 녹조는 20~30°C의 수온에서 가장 활성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

녹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장마철 빗물과 함께 떠내려오는 초목과 각종 쓰레기, 상류 축사에서 유입되는 축분 등의 오염원이다. 장마 이후 유입된 오염물질로 강과 저수지에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풍부해지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부영양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남조류가 자연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증식하게 된다.

그렇다면 녹조는 왜 문제가 될까. 조류는 광합성 작용으로 산소와 유기물을 만들어 수중 생태계의 1차 먹이를 제공하는데, 과도하게 증식하면 물속 산소가 부족해져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또 녹조의 원인인 남조류 중 일부는 발생 과정에서 좋지 않은 냄새를 내어 불쾌감을 주고 독성물질을 생성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직접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환경부에서는 남조류 중 4종(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을 유해 남조류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다행히 취수원에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독성이나 냄새 물질은 고도의 정수처리공정을 거치면서 제거되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대청호 품곡천 에코필터링 조감도
2. 대청호 부유물처리 작업장 현장점검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발빠른 노력

녹조로부터 깨끗하고 맑은 물 환경을 지키는 방법으로 '사전 예방 방법'과 '사후 대응 방법'이 있다. 먼저 사전 예방은 녹조 발생 전 주요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녹조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유역 내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유물, 방치된 축분이나 퇴비, 생활 쓰레기 등 오염원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다. 또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도입하는 물 환경 관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대청댐과 주암댐에 저류시설, 여과시설, 에코필터링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가 완료되면 댐 상류 지역에 유입되는 오염원의 양이 전보다 7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후 대응은 발생한 녹조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다. 조류경보제 발령단계에 따라 취수탑 주변으로 조류차단막을 설치해 조류 유입을 방지하고, 녹조의 집적 방지를 위해 물순환설비와 수면포기기를 가동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조류제거 물질을 살포하여 녹조를 제거하기도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수준의 녹조제거설비를 배치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단위 녹조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녹조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녹조관리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인공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녹조 이동 패턴 분석, 에코로봇을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으로 입체적인 녹조 감시체계를 구현하고, AI 기술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며, 수질·녹조 예측 결과를 기관 간 공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녹조대응체계를 실현할 계획이다.



새로운 발상으로 녹조를 잡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수자원공사는 '제거'의 대상으로만 여겨던 녹조를 이용해 녹조를 억제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댐 상류에 대규모 '녹조퇴치 밭'을 조성한 것이다. 녹조퇴치밭은 댐 상류에 차단막을 설치해 녹조 과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오히려 과증식된 녹조가 먹이로 영양염류를 소모하게 하는 원리로 만들어진다. 증가한 녹조가 영양염류를 과다섭취하면 결과적으로 댐 하류로 흘러 들어가는 영양염류가 감소하고, 자연적으로 댐 저수지의 녹조가 줄어든다.

올여름은 장마 이후에도 이어진 국지성 돌발 호우와 기록적인 불볕더위로 녹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일찍이 녹조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오염원 관리와 정수처리 고도화 등을 통해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현상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수온, 일사량 등은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녹조 발생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녹조에 대한 전문적 진단을 바탕으로 공공 분야의 효과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녹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부터 오염원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창녕 함안보 칠서취수장에서 운영중인 녹조제거선
2. 자율주행형 녹조제거장치 에코로봇
3. 여름 장마철 녹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긴급회의
4. 녹조 대응을 위한 실시간 녹조 현황 모니터링



쉽게 알아보는 녹조대응



Q1. 다른 나라도 녹조가 심한가요?

녹조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 축산업의 증가, 농업의 고도화 등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녹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전녹조 예방대책과 직접 녹조제거 등 타 국가보다 강화된 대응으로 녹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일상생활에서 녹조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남조류가 좋아하는 질소와 인 같은 영양염류가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녹조 발생을 막을 수 있는데요.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물가에서 세차나 뺨래 등 오염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탁이나 설거지를 할 때 합성 세제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마크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적정량 사용하면 녹조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8월의 대전은 그야말로 ‘유잼’의 도시였다. 지난 8월 9일부터 진행된 0시 축제로 인해 대전 원도심 거리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 다양한 체험부스와 양질의 공연을 선보이며 일류 문화도시로서 저력을 보여준 대전 0시 축제에 한국수자원공사도 함께했다.

유잼도시 대전에서 펼쳐진 한여름날의 축제

글. 편집실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홍보실



대전을 뜨겁게 달군 9일간의 대장정

지난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대전이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올해 2회째 맞는 대전 0시 축제가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을 맞이한 것.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도 소통부스를 마련,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제공했다.

올해 본사 대전 이전 50주년을 맞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소통부스에서 대전과 함께한 5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시간여행을 주제로 전시존과 기념 메시지존 등을 구성했다. 또한, 지방시대를 응원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극한 기후위기를 막아라! 워터건 사격게임’, 지역 균형 발전을 응원하는 ‘워터볼 밸런스 체험’ 등의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도 선보였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마련한 ‘대전 스타의 밤’은 지역민과 관광객을 비롯한 6천여 명의 관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윤석대 시장은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대전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과 지속적으로 상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시대를 여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대전 시민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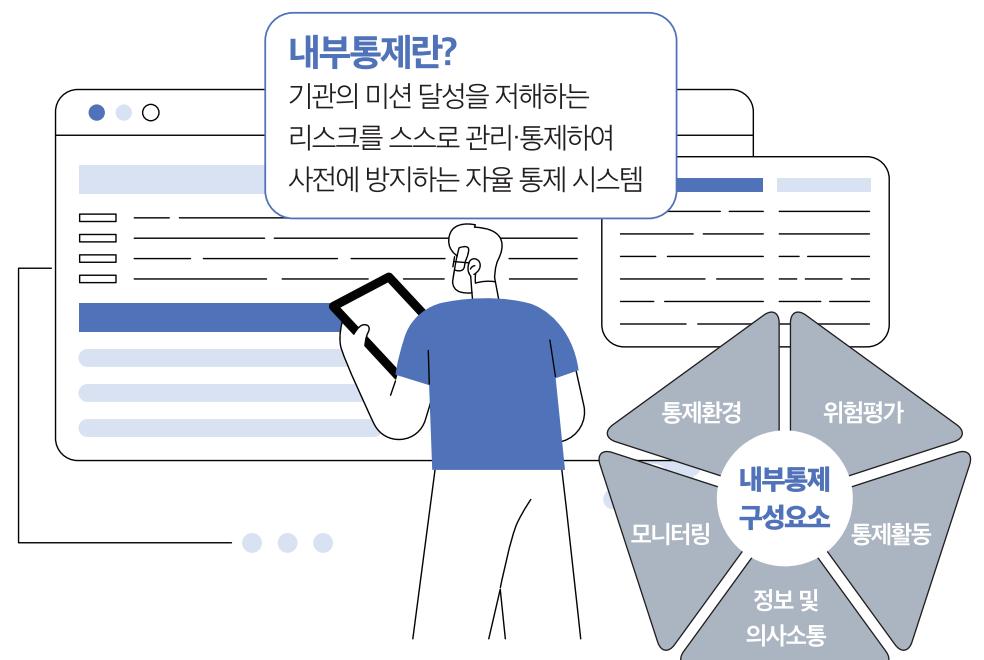
함께 한 50년 같이 갈 100년 대전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희망찬 동행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과 지속 성장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으로 경영 리스크 zero에 가까워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노력을 살펴본다.

엄격한 관리를 통한 리스크 원천 차단 내부통제 강화

글. 편집실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리스크는 줄이고, 실효성은 높이고!

내부통제란 기관의 미션 달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자율 통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재무적·비재무적 손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통제환경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내부통제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통제 활동의 체계성과 정확성을 높여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내부통제 총괄 시스템인 '윤리+US'이다. 전사 위험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전적·자율적 통제가 가능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AI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영역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징계사례, 설문결과 등의 데이터 수집 후 AI를 활용해 집중 통제가 필요한 타깃을 설정하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촘촘하게
내부통제 관리체계 구축
1-2-3선 주체별 역할 구체화 및 협업으로
내부통제 실행력 UP

더 편리하게
모바일 통합 신고채널 청렴사이트 개설
여러 곳에 흩어진 신고 수단을 카카오톡 채널 하나로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고 **조기대응 가능성 UP**

**한국수자원공사의
고도화된 내부통제**

더 스마트하게
내부통제 총괄 시스템 윤리+ US 구축
전사적 위험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업무 단계별 **리스크 발생 사전 예방**

공공기관 최초
AI 위험영역 예측 모델 개발(예정)
AI 활용 잠재위험 식별 및 집중 통제 타깃 설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 **경영 리스크 zero**에 더 가까이



NEWS

01 녹조 제거 가용자원 총동원



지난 8월 13일 윤석대 사장은 대청댐 현장을 찾아 댐 운영과 부유물 처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녹조 확산에 대응해 녹조 제거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대청댐에 유입된 초목류와 생활 쓰레기 등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부유물의 신속한 제거를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장마 이후 물 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고 이수 역량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부유물 차단막이 위치한 충북 옥천군 석호리와 추소리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계속되는 이상고온으로 녹조 발생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즉시 가용 가능자원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형 수상 녹조 복합제거선 투입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소형녹조 감시장치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물 환경 개선 방안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02 2024 을지연습을 통한 위기대응 역량 점검



한국수자원공사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2024 을지연습'을 통해 전시 국가 재난 안전 태세에 맞춰 국민의 물 안전을 위한 위기 대응 역량을총체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8월 20일에는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지역 10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장흥댐 일원에서 관계기관 합동 테러 대응 실제 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훈련은 드론 공격 등 테러로 인한 댐 수문 파손 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군, 경, 소방,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수문 설비의 신속 복구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주력으로 실렸다. 윤석대 사장은 "전시를 포함한 각종 재난 및 비상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기관의 책무"라며, "이번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중요시설의 위기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water Monthly Magazine
2024. 09 | Vol. 678



03 100인 안전 패트롤 발족식 개최

지난 8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가 '100인 안전 패트롤' 발족식을 개최했다. 안전 패트롤은 범위가 넓은 안전 유형을 표준화하고 잠재적인 취약 요소를 식별하여 예방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며, 안전 분야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번 패트롤은 건설 현장과 사업장, 시설물, 적용 기술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내부 직원 및 외부의 민·관·학 등 전문가 100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안전 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설계·시공 검토, 현장 안전점검 등 안전 경영체계 운영에 있어 새로운 시각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폭넓은 지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04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 우수사례 선정

한국수자원공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원원 아너스 프로젝트'에서 공공기관 동반성장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디지털 민관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물산업 육성의 플레이그라운드 워터라운드'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워터라운드를 이용하여 협력기업인 에코피스에 데이터, 인프라, 판로 등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수질관리 로봇 개발을 완성한 바 있다. 이처럼 유망 기업의 디지털 솔루션 기획, 개발, 유통 전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참여기업들과의 공동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05 2024 대국민 물 빅데이터 공모전 성료

물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2024년 K-water 대국민 물 빅데이터 공모전'의 최종경연이 지난 8월 13일 대전 본사에서 진행됐다. 대국민 물 빅데이터 공모전은 물 분야 공공데이터의 기공, 분석 등을 통한 국민 관점의 창의적 의견을 반영하여 대국민 물 서비스 향상, 물 문제 해결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연에서는 '실제 가뭄 피해사례 기반 AI 활용 실시간 물 수급 위험도 예측 서비스'를 제안한 국민대학교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 참여 기반의 혁신적인 물관리 아이디어가 확산하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K-Pop

Idol

Environment



소방차부터 BTS까지 아이들의 역사는 무척이나 오래됐지만, 덕질이 지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건 최근에야 수면 위로 떠오른 사실이다. 무대 위의 우상과 무대 아래의 우리가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기후위기 앞에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덕질’이란 무엇일까.

글. 조수빈

최애는 폐기물을 남기고

한 아이돌 그룹의 팬 A 씨는 사인회에 가기 위해 같은 앨범을 200장이나 구매했다. 앨범 하나당 한 장씩 들어있는 사인회 응모권 때문이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매한 수백 장의 앨범 중 정작 A 씨가 소장하는 것은 한두 장 정도. 처지 곤란인 앨범들은 중고거래로 되팔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로 버려진다. 팬들의 앨범 대량구매를 부추기는 상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이돌 앨범은 CD뿐만 아니라 포토카드, 엽서, 포스터 등의 굿즈 등 구성품이 풍성해 그 자체로 소장가치가 높다. 문제는 이 굿즈들이 랜덤이라는 데 있다. 각 굿즈에는 아이돌 멤버의 사진이 무작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최애 멤버 굿즈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여러 장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동일한 가수나 그룹의 앨범을 연속으로 구매해 열어보는 행위가 ‘앨범깡’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K-팝

에 해외 팬들이 유입되면서 이러한 팬덤 문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예기획사가 앨범 제작에 사용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7년 55.8t에서 2022년 801.5t으로 5년 사이에 약 14배 가량 늘었다. 게다가 요즘 앨범은 종이,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여러 재질을 섞어 만들어 재활용을 하기에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일부 기획사에서는 친환경 소재 앨범과 굿즈를 제작하거나, 물에 녹는 종 이를 활용해 앨범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애당초 팬들이 앨범을 사는 이유가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앨범깡을 부추기는 상술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후위기에 맞서는 연예 산업의 움직임

글로벌 투어 같은 공연 또한 탄소 배출을 피할 수 없다. 항공 이동, 공연장 운영, 티켓 발부, 굿즈 제작 등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 개최된 라이브 콘서트는 매년 40만 5,000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해외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이는 몇 해 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무대에 마련하고 있다. 공연에 사용하는 전력을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태양광 타일을 설치했고, 공연 중 신난 팬들의 움직임으로 생긴 운동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도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월드 투어를 위한 비행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비행을 해야 할 때는 일반 항공유보다 80% 가까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항공유(SAF)를 사용해 지속가능성을 더했다. 영국 팝스타 해리 스타

일스는 비영리 환경 단체 리버브(Reverb)와 손잡고 100회 이상의 투어 동안 3만 개 이상 일회용 플라스틱병을 제거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미국의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는 팬들이 스스로 기후행동과 기후정의에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스를 각 공연장마다 마련했다. 이처럼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K-Pop 팬들이 아이돌을 만나기 위해 수백 장의 앨범을 구매하던 열정을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줄 차례다. 다행히 요즘 팬덤 세대는 환경에 관심이 많고, 친환경적인 움직임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 한 사람의 ‘가치’가 새로운 덕질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는 시대인 데다 K-Pop이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잘 활용한다면, 아이돌도 지구를 지키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방울특파원★

#소통해요 #좋아좋아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슬아슬한 물의 마법

한 방울, 한 방울,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한 방울… 넘칠 법도 한데 물의 표면만 높아질 뿐 넘치지는 않는다. ‘표면장력’의 원리 때문이다. 물은 어째서 쏟아지지 않는 걸까? 보이지 않아 더 신비한 표면장력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보자.

글. 편집실

표면장력

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게임이 있다. 컵 하나를 두고 번갈아 가며 물을 조금씩 붓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 물이 넘치면 게임 끝. 이 간단한 게임이 쉽게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심장을 풀깃하게 죄어온다. 물의 장력을 이용한 이 게임의 이름은 바로 ‘표면장력’이다. 물은 문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응집력이 강해 표면적을 최대한 줄이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액체 내부 분자는 상하좌우 대칭적인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하는 반면, 표면의 분자는 아래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한다. 컵에 따른 물이 쉽게 넘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며 표면만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시 말해 표면장력이란 액체의 표면에 탄력이 있



는 막이 생성되는 원리이다. 이때 물 표면 위의 물체가 표면장력보다 약한 경우 그 물체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소금쟁이의 경우 발끝의 기름이 물을 밀어내며 표면장력을 일으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물수제비’도 역시 같은 원리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다. 물수제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돌의 모양이 중요하다. 물과 부딪히는 면적이 넓은 납작한 돌일수록 좋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표면장력 게임의 필승법도 있을까? 찬물을 사용하면 된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표면장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군가 표면장력 게임을 제안하다면 미리 찬물을 준비해두도록 하자.



지금 AI연구센터에서는?!

직장인 vlog

다양한 인공지능이 연구·개발되고 있는 AI연구센터.
AI 연구원들의 일상 속으로 GO GO~

#직장인브이로그 #갓생직장인
#AI연구센터 #인공지능시대
WWW.YOUTUBE.COM/KWATER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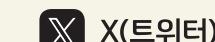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



대구 디아크 문화관에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등장이라…

#투명페트병무인수거기
#자원순환의날
#대구디아크문화관
#투명페트병재활용



X(트위터)

TWITTER.COM/KWATER_TWITT



방울이도 시커줘
명예일잘라

#프로일잘라
#일잘라조건
#방울이의 직장생활
#K-직장인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ATERWORLD



한국의 지베르니 공원이 있는
안동으로 가자!

#안동물길여행 #안동댐
#세계물포럼기념센터
#낙강물길공원 #월영교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



행복한 건 좋아
할 일 많은 건 싫어
(방울아 나도~)

#방울적사고
#힐링푸드
#떡볶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8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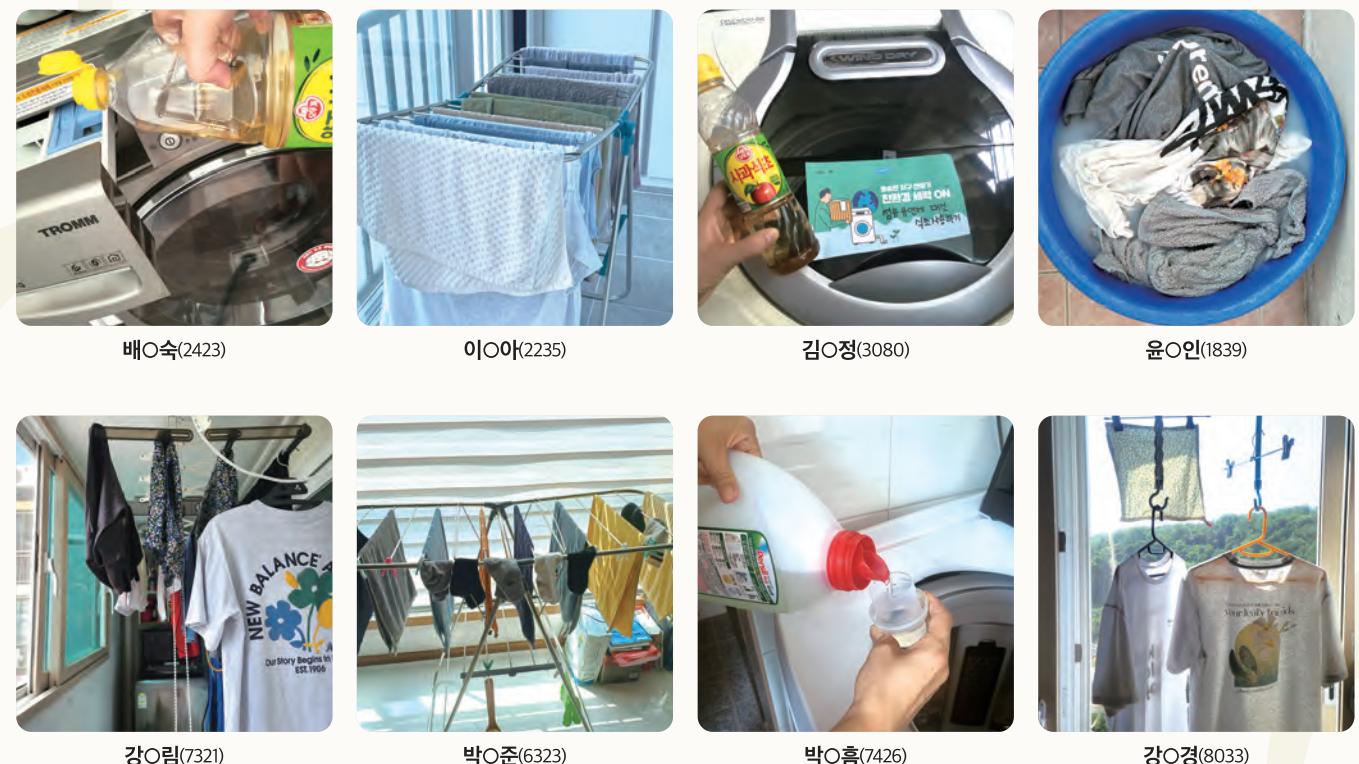
8월호 '친환경 세탁 ON' 챌린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한 정성 가득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친환경 세탁 # 세탁기 청소 # 자연건조



한○미(3236)

김○진(6952)



배○숙(2423)

이○아(2235)

김○정(3080)

윤○인(1839)

강○림(7321)

박○준(6323)

박○흡(7426)

강○경(8033)

#환경재생사업 좋아요

EVENT 01
이벤트 경품
커피 기프티콘 10명

@hyelee.cho	@cyangirl1976
@ziminn6	@mming.e.e
@suuddi44	@yang9gan15
@sono.7182	@eeeeeeeeykang
@2miyon27	@go_johan

※9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사지선다 퀴즈

EVENT 02
이벤트 경품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10명

채○혜(7820)	최○진(8679)
김○선(9811)	김○태(3283)
임○연(3803)	김○은(2116)
오○경(4429)	차○수(6191)
박○영(3236)	전○용(8452)

친추 이벤트

EVENT 03
이벤트 경품
커피+도넛 기프티콘 10명

전○혁(1561)	박○운(0978)
구○비(8409)	심○익(4202)
김○래(0973)	강○우(6272)
이○자(6223)	김○진(4750)
강○금(8245)	김○옥(1688)

<물, 자연 그리고 사람> NEW 이벤트 안내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주세요

사보 또는 웹진을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이벤트 경품 BHC치킨 후라이드 콤보(5명)

접수 마감일 9월 20일

선물 발송일 9월 30일

검색창에 **한국수자원공사 웹진** 을 검색해보세요!



후기 작성

EVENT 1



EVENT 2



#kwater녹조대응사업_좋아요_이벤트

인스타그램에서 #kwater녹조대응사업을 검색해보세요.
본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녹조대응사업을 검색
→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댓글' 남기기
→ 자동 응모 완료!

이벤트 경품 커피 기프티콘(10명)

접수 마감일 9월 20일

선물 발송일 9월 30일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 구독 이벤트

9월부터 모바일 사보(웹진)가 더욱 보기 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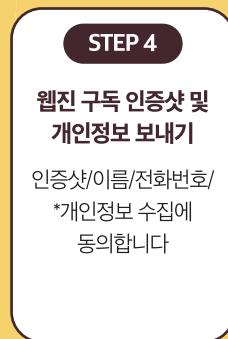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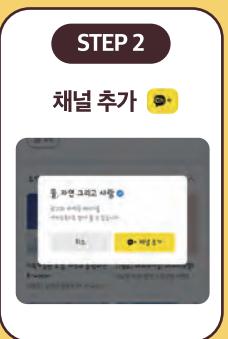
알차게 바뀌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금 바로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 사보를 구독해주세요!

구독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이벤트 경품 커피 기프티콘(20명)

접수 마감 9월 20일 / 선물 발송 9월 30일



방울이 편지지

내 맘대로 활용하는 인증샷 이벤트

방울이 편지지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경품 아이스크림 기프티콘(5명)
참여 방법 QR코드 접속 후 제출
접수 마감 9월 20일
선물 발송 9월 30일



K-water Monthly Magazine

2024. 09 | Vol. 678

KOR

KOR



NAME BANGWOORI

FLIGHT KW678 GATE 15 SEAT 24A DEPARTURE

NAME BANGWOORI
FLIGHT KWATER
GATE SEAT
15 24A
DEPARTURE



K-water Monthly Magazine

2024. 09 | Vol. 678

KOR

KOR



NAME

FLIGHT KW678 GATE 15 SEAT 24B DEPARTURE

NAME
FLIGHT KWATER
GATE SEAT
15 24B
DEPARTURE



한국수자원공사 여권

K-water PASS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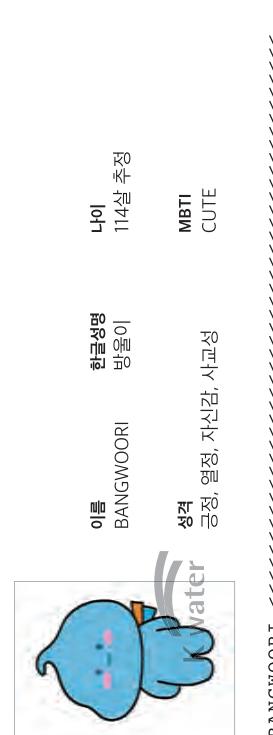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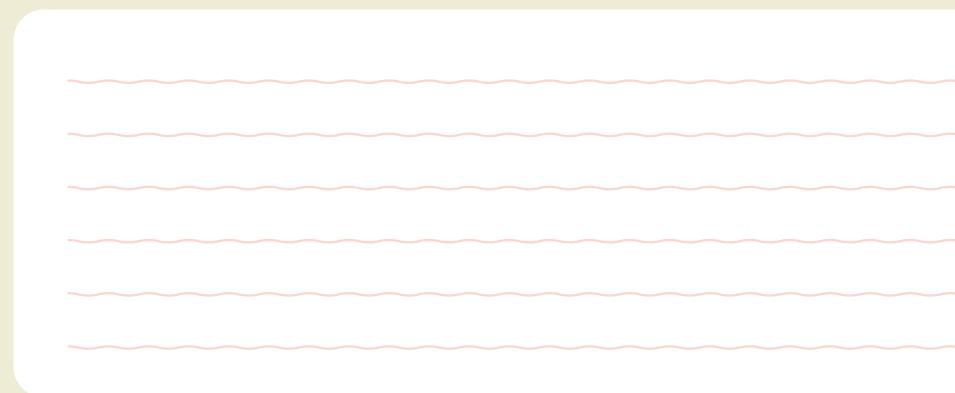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당신은 누구와 떠나고 싶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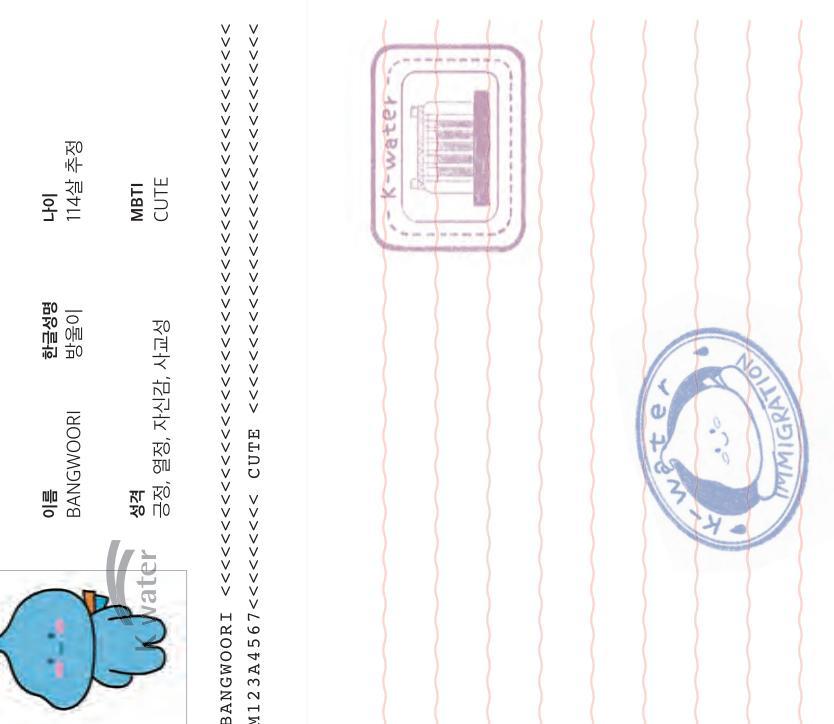
함께 가고 싶은 사람에게 방울이 편지지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편지지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물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지구에 온 아쿠아드 왕자 방울이, 긍정적이
고 열정이 넘치는 방울이는 지구인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방울
이 만나면 보길게 인사해 주세요!

여권 PASSPORT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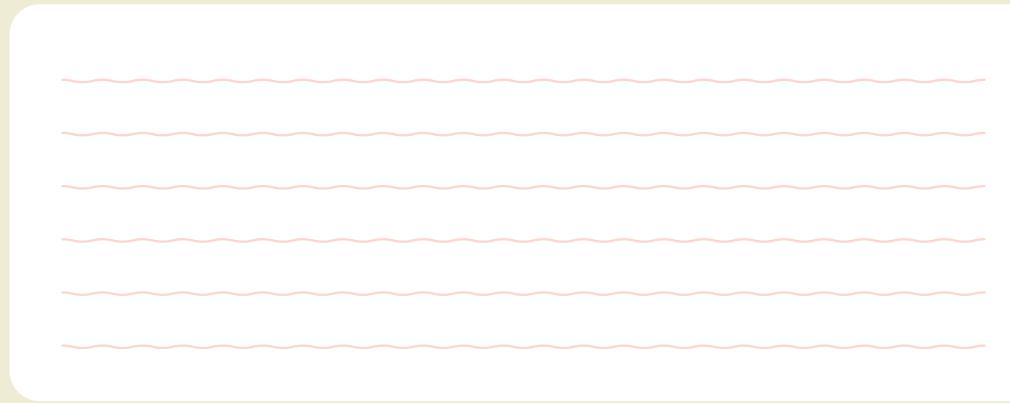
물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지구에 온 아쿠아드 왕자 방울이, 긍정적이
고 열정이 넘치는 방울이는 지구인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방울
이 만나면 보길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누구와 떠나고 싶나요?

함께 가고 싶은 사람에게 방울이 편지지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편지지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호부터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POINT 1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콘텐츠**

트렌드부터 여행, 환경까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POINT 2

**더 많은 독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물을**

독자후기, 방울이 편지지 등 더욱
다양하고 신선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POINT 3

**예고 없이 찾아오는
깜짝 이벤트**

매월 1회 깜짝 퀴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스포. 매월 둘째 주에 웹진을 찾아주세요.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64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